



군종주보

2019년 4월 28일(제926호) 부활 제2주일 곧, 하나님의 지비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껏 미움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아무리 되짚어 봐도 저는 항상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밖으로 티가 나던, 나지 않던 미운 사람이 사라지면 다른 누군가가 또 미워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에 누군가의 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분명 미움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털어버리면 될 것인데 어째서 이려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만듭니다. 욕하고 짜증 내고 화내고 원망하다 보면 결국 망가지고 있는 것은 저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이런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에서 제멋대로 나와 버린 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말 못할 자존심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것은 실상 그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죄’가 남아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누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대로 두면 ‘누구의 죄’가 내 마음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평화를 빌어준 적이 있는가? 매일 미움만 뱉어내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사순을 통해 죄악에 가득 찬 자신에 대해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도움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살아야 합니다. 불화가 아니라 평화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더 이상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죄’가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기를 희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장세진(요셉) 신부
명월(15시드)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사도 5,12-16
- 회 답 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 2 특 시 묵시 1,9-11나.12-13.17-19
-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 복 음 요한 20,19-31
- 영 성 제 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심조이 바르바라



성인명: 심조이 바르바라 (沈召史 Barbara)

신분: 양반, 부인, 순교자

활동연도: 1813-1839년

심조이(沈召史) 바르바라는 인천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20세 무렵에 흥봉주 토마스와 혼인하였다. 1801년의 순교자 흥낙민 루카는 그녀의 시조 부였으며, 그녀와 같이 체포되어 1840년에 순교한 홍재영 프로타시오는 그녀의 시아버지였다. 남편 흥 토마스도 1866년에 순교하였다.

심 바르바라는 지능이 아주 낮았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요한 교리 외에는 배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은 말할 수 없이 굳었으며, 자선하려는 마음 또한 열렬하였다.

1839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났을 때, 심 바르바라는 전라도 광주에서 살았다. 시아버지가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교우들이 박해를 피해 자기 집으로 피신해 오자, 심 바르바라는 그들을 헌신적으로 거두어 주었다. 그녀는 조금도 짜증을 내지 않았고 음식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자신에게 짐이 된다는 눈치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에 심 바르바라는 시아버지를 비롯하여 함께 살던 교우들과 같이 체포되어 전주 감영으로 끌려갔다. 그녀는 체포될 때나 문초를 받는 가운데서도,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신음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고통을 참아 내었다. 그녀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한 살이 된 막내 아들이 굶주림과 병으로 천천히 죽어 가는 것을 보는 일이었는데, 그녀는 신앙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마침내 전라 감사는 심 바르바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형벌의 고통과 더불어 이질까지 걸렸으며, 스스로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되자 타당하게 준비한 뒤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처럼 심조이 바르바라가 옥중에서 순교한 날은 1839년 11월 11일(음력 10월 6일)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26세였다. 그 뒤를 이어 그녀의 아들도 몇 시간 뒤에 숨을 거두었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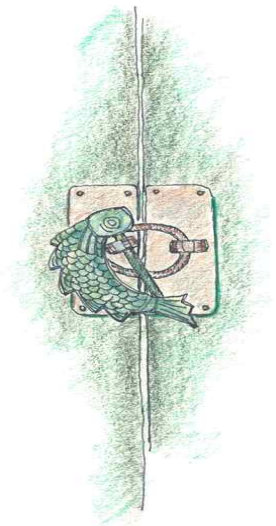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우리가
떨고 있는 걸.
들키지 않게.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 자물쇠를 열고
님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입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대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위 형법 조항은 태아 시기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정으로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일부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보듯, 자기결정권에 의해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은 인간생명의 불가침과 약자 보호라는 사회질서의 기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로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생태적 감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태아를 해치는 행위를 허용하는 이번 결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어긋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신과 출산을 여성 개인에게 떠넘긴 채, 임신한 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적·문화적 노력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성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잉태된 모든 태아와 임신한 모든 여성이 보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리는 지난한 법률 개정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성과 태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아기 아버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의 공동책임을 받아들이는 의식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 용 훈 주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2em; font-weight: bold;"> 교구소식 </div>	군중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2주일: 상무대 최병규 신부
<p>◆ 교구장 동정</p> <p>- 칠성대(공군작전사) & 지성대(2방공포여단) 성당 사목방문 때: 4월 28일(주일)</p>	<p>◆ ‘군중의 시간’ 안내</p> <p>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p>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밭을 씻었으면, 너희도 시로 밭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